

“손흥민, 올여름 지구 두 바퀴 돌았다”

ESPN 분석 4만7700마일(7만6765km)

“AG·A매치 포함 26일간 8경기 뒀 셈”

혹사 시까지지 일인 손흥민(토트넘), 올 여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까.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그 기록을 공개했다. 13일 ESPN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종료 후 이동 구간과 비행 거리를 그래픽과 함께 조명했다.

손흥민이 이 기간 4만7700마일을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7만6765km, 지구 두 바퀴에 육박하는 거리다.

손흥민은 월드컵에 앞서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런던에서 서울까지 5600마일을 비행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레오강 전지훈련을 위해 5300마일, 월드컵 때 5600마일을 이동했다.

이후 4100마일을 날아 한국으로 돌아온 뒤 토트넘 일정을 위해 런던(5500마일), 로스앤젤레스(5500마일), 미니애폴리스(1500마일), 런던(4000마일) 등을 거쳤다.

2018 자카르타·아시안게임 출전차 런던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다시 7400마일을 날았다.

또 3300마일을 이동해 A대표팀 국내 평가전을 소화한 손흥민은 12일에야 런던으로 돌아왔다.

ESPN은 “손흥민이 동남아시아의 높은 습도 속에서도 6경기에서 524분을 뛰었다. 한국에서의 두 차례 A매치를 포함하면 26일간 8경기를 뒀 셈”이라고 계산했다. “국가를 위해 뒀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는 손흥민의 말

SON HEUNG-MIN'S SUMMER SCHEDULE



TOTAL MINUTES PLAYED: 1,418 approx

TOTAL AIR MILES: 47,700 approx

도 소개하며 그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운찬 KBO총재, AG 논란 관련 사과와 변명 뿐 ‘알맹이’가 없다

사과와 변명뿐이었다. 정작 ‘알맹이’인 구체적인 밑그림이나 대안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정운찬 총재가 12일 오전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KBO는 “현재 야구계의 당면 과제와 KBO 리그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야구 팬들의 질책이 잇따랐고,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은 한층 거세졌다.

그러자 KBO는 지난 5일 2022년 아시안게임 때 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보내준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이달 2일 이후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정 총재가 공식석상에 직접 나서지는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 총재는 10일 2차 신인 드래프트 행사장에서 이날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예고까지 한 터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구체적 대책은 없었다. 뜬구름잡기 식의 두루뭇수리 답변만 했다.

정 총재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것으로 간단히 시작됐다.

“아시안게임에서 보내주신 큰 성원 덕분에 당초 목표대로 우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시안게임 야구 3연패도 달성했다”며 “그러나 국민 스포츠인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쳤다. 외형의 성과만 보여드리고 만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 총재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1차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한국야구미래협의회(가칭)” 구성이다. 정 총재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KBO에서 5명,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5명을 추천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책이라고 들어나온 협의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사실상 없다. 협의체 발족 시기나 형태도 오리무중이다.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해 추천할 것”이라



는 원칙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 총재는 “협의체가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을 살펴보고 이 사태를 포함해 모든 것을 공론화할 것이다. 한국 야구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는 병역면제 혜택이 있다. 대표팀을 구성하면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전임 감독제가 되면서 사라진 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 총재는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의 원인이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되레 “선수 선발의 책임은 선명 감독에게 있다. 코칭스태프 의견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와 가치에 따르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며 선 감독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 총재는 “지난해 7월 전임 총재 시절에 전임 감독제가 생겼다”며 자신의 임기 전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다.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고 방침에 따르겠다”면서 정부 쪽으로 공을 넘겼다. 야구계에서 불거진 시비를 야구계에서 해결하지 못해 정부가 나선 것인데,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패배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사과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만 앞으로 변화를 기대할 만한 대책이라도 들고 나왔어야 했지만 알맹이 없이 뒤늦은 사과만 있었다.

최지만, 클리블랜드전 결승포 작렬...5경기 연속 안타

4번 지명타자 선발 나서 4타수 2안타...타격감 자랑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이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1회말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7)이 다시 한 번 장타 본능을 과시했다.

최지만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지역공동미디어정보제공센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지난 1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쳤던 최지만은 이날 결승 홈런을 터뜨리며 몰오른 타격감을 자랑했다. 최근 5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0-0으로 맞선 1회말 2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클리블랜드 선발 카를로스 카라스코의 한 가운데로 몰린 초구(투심패스트볼)를 받아쳐 선제 중월 투런 홈런(시즌 9호)을 터뜨렸다.

3회 6회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최지만은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전안타를 때려냈다. 그러나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친 최지만은 시즌 타율을 0.280으로 끌어올렸다. 시즌 29타점, 20득점째를 기록했다.

탬파베이에는 최지만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시즌 80승 65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를 달렸다.

남태희, AFC 인상적 활약 선수 5명에 선정

남태희(27·일두하일)가 아시아 축구연맹(AFC)이 선정한 9월 A매치데이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5명의 선수 중 하나가 됐다. AFC는 13일 9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데이 기간 맹활약한 선수 5명을 뽑았다.

남태희는 지난 7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후반 33분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빠르게 돌파해 들어간 뒤 수비수 3명을 따돌리는 개인기로 득점에 성공했다.

남태희와 함께 알모에즈 알리(카타르), 카이랏 지그갈베크(키르기스스탄), 오마르 알 소마(시리아), 모리야스 하지메 감복(일본)이 이번 베스트5에 올랐다.

AFC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손흥민은 코스타리카전과 칠레전에서 한국의 중심의 뒀지만 벤투호의 첫 두 경기에서 가장 큰 승자는 남태희”라며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남태희는 벤투호에서 한국 대표팀이 있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